

	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	미사시간	주일	토요일 주일 : 16:00 (유·초등부 소성전), 19:00	
				06:30 (새벽),	10:30 (교 중)
				10:00 (중·고등부 소성전)	12:00 (낮)
				19:00 (청년)	
			평일	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	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 ☎ 사무실 857-8541~2 팩스 857-8549		예비자 교리	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		
		유아세례	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		
		연령회 총무	옥윤필 마티아 010-5117-5564		

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(2022. 3. ~ 2023. 9. 30)

● 모임

단체명	일시	장소
위령봉사회	2월 5일(일), 11:40	강당
M.E.	2월 5일(일), 11:50	6교실
제대현화회	2월 7일(화), 10:30	2교실
임원모임	2월 8일(수), 20:00	식당
자녀들을 위한 기도	2월 9일(목), 19:40	1교실
1Cu-우리어머니	2월 12일(일), 12:00	강당
2Cu-사도들의 모후	2월 12일(일), 13:30	강당

*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*

(맛벌이 / 이주민 / 다문화 / 다자녀)

- 전액 무료, 저녁 식사제공
- 후원금계좌 : 신한 131-018-937372
(사) 국제청소년지원단

* E-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*

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 (주보대 위 수거함)
 ※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● 교육 / 강좌

- 살레시오와 꿈(CUM) 후원 미사
 - 일시 : 2월 6일(월), 10시
 - 지도신부 : 유명일 사무엘 신부님
-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.
 - 주일반, 평일반
 -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.

● 알림

- 오늘은 해외원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.
- 2월 10일(금) 지역별 병자영성체가 있습니다.
- 2월 15일(수) 11시 경로당 월례 미사가 있습니다.

● 재의 수요일 안내 : 2/22(수)

-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
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.
-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
 의미로 금육재(만14세부터)와 단식재(만18세~60세
 전까지)를 지킵니다.
 - 성지가지를 가지고 계신 가정은 성전입구 수거
 함에 2/19(일)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및 재의 예식 안내

새벽 06:30	저녁 7시
----------	-------

● 2023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

- 대상: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~6학년 어린이(2023학년)
- 일정: 3/4~6/10, 첫영성체: 6/11(일)
- 부모님 첫 모임 : 2/25(토) 17:00, 소성전
- 교리: 소성전 교육관 (토, 14:00~15:30)
- 신청접수/접수처: 2/5~2/18까지, 사무실(평일 접수)
- 문의: 김국화 교사 010-5336-2802(문자로 문의)

● 다음 주일(2/12)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

국수잔치	7구역	청소	16구역
------	-----	----	------

● 우리들의 정성(1월 25일 ~ 1월 31일)

교무금	10,625,000원
주일헌금	5,425,000원
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	1,698,000원
정영자 1만원 박재형30만원 김수자10만원	
백승숙10만원 김정배10만원 황혜영10만원	
• 감사헌금	
황옥자20만원 양○○ 5만원 송명순 5만원	
이봉연 5만원	

●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일	해설	복사	독서
2/5	박혜선	오성환	김영균
2/12	황원선	심재순	최상림
		최웅조	손정주

● 성체 분배자 명단

월일	토요주일	06:30	10:30	12:00
2/5	이운영	박승환	장인홍	최석준
2/12	이화봉	옥윤필	최승일	최영만
			최창열	

화답송

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 (*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“모든 형제들” -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

248.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피폭 사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“이곳에서 저는 모든 희생자를 기억합니다. 또한 육체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정신적으로는 삶의 기력을 계속 소진시키는 죽음의 씨앗을 지닌 채 수십 년을 견디어 오신 생존자 여러분의 강인함과 존귀함 앞에서 저는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……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이 그 사건의 참상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. 이 기억은 더 공정하고 형제애 넘치는 미래의 건설을 보장하고 촉진합니다.” 또한 여러 나라에서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박해, 노예 매매, 민족 살상,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밖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, 늘 새롭게 끊임없이, 무너지지 않고, 기억되어야 합니다.

249. 오늘날,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앞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. 제발, 그러면 안 됩니다! 기억이 없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, 온전하고 명료한 기억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. 우리는 “집단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”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. 이는 “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건의 참상을 증언합니다.” 그러한 증언은 “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고 보전하여 인류의 양심이 온갖 지배욕과 파괴욕에 더욱 강력히 맞설 수 있게 합니다.” 개인이든 사회 집단이든 국가든, 희생자들 자신은 그들이 겪은 커다란 악행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보복과 온갖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. 이러한 까닭에, 저는 공포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, 비참하고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, 크고 작은 몸짓으로 연대와 용서와 형제애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도 언급합니다. 선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.

용서하되 잊지 말기

250.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절대로 부인될 수 없고 상대화시켜 버리거나 은폐해 버릴 수도 없는 어떤 일에 맞닥뜨릴 때조차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결코 용인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될 어떤 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이유로도 잊을 수 없는 일조차 용서할 수 있습니다. 기꺼이 진심으로 하는 용서는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반영합니다. 용서가 거저 베푸는 것이라면, 뉘우치려고 애쓰고 용서를 청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.